

광주 작년 출생아수 7천318명...10년새 반토막

호남통계청 ‘2020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분석’
전남은 첫 1만명 붕괴...광주 합계출산율 0.81명

지난해 광주지역 출생아 수는 10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고 전남은 처음으로 1만명대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의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0.81명으로 집계돼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 1명 이하를 기록했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2020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출생아 수는 7천318명으로, 전년 대비 1천46명(-12.5

%) 감소했다.

광주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3천979명에서 2013년 1만2천729명으로 3년새 1천명이 줄었으며 2016년 1만1천580명으로 또 3년새 1천명이 감소했다. 2017년에는 1만120명으로 줄어 불과 1년만에 1천여명 넘게 감소했으며 2018년 9천105명으로 1만명대가 무너졌다.

10년새 출생아 수가 47.6% 감소하며 반토막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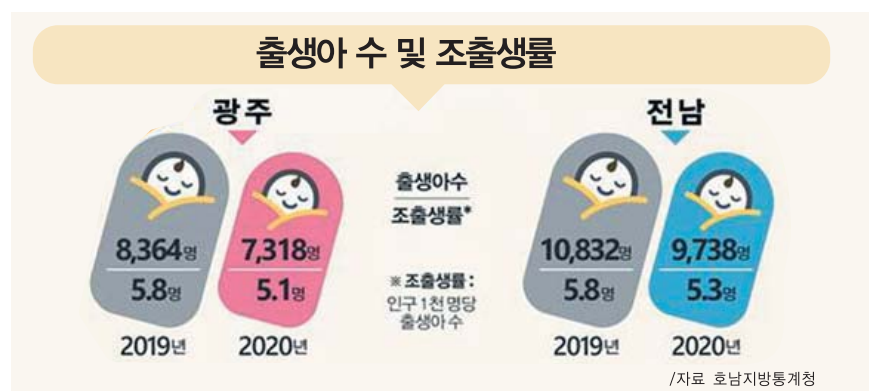
지난해 조 출생률(인구 1천명 당 출생

아 수)도 5.1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줄었고 2012년 9.9명에서 8년 연속 감소했다.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9천738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대가 붕괴됐다. 2010년 1만6천654명에서 2013년 1만5천401명으로 3년새 1천명 감소했고 2014년 1만4천817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2015년 1만5천61명으로 1만5천명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5년 연속 줄어 최근 10년새 41.5% 감소하며 처음으로 1만명대가 붕괴됐다. 조 출생률은 5.3명으로 전년 대비 0.5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광주



는 0.81명으로 전년 대비 0.10명 줄었다. 지난 2018년 0.97명으로 감소한 뒤 3년 연속 1명 이하를 밑돌고 있다.

전남은 1.15명으로 전년 대비 0.09명 줄었다.

이에 광주 합계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낮았으나 전남은 세종(1.2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 모(母) 평균 출산 연령은 33.08세로 전년 대비 0.27세 늘었고 전남은 32.41

세로 동일했다.

호남·제주지역 시군구 합계출산율은 전남 영광군이 2.46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순위와도 같았다.

호남·제주 합계출산율 상위 10곳은 장흥군(1.77명·2위), 해남군(1.67명·4위), 장성군(1.51명·7위), 고흥군(1.46명·8위), 완도군(1.44명·9위), 영암군(1.38명·10위) 등 7개 군이 포함됐다.

반면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 서구(0.71명)였으며 광주 남구(0.75명·2위), 전남 목포시(0.80명·3위), 광주 동구(0.80명·4위), 전남 곡성군(0.81명·6위), 광주 북구(0.83명·7위), 광주 광산구(0.90명·10위) 등이 하위 10곳에 포함됐다.

/기수회기자



바튼만 누르면 요리가 저절로...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 테팔매장에서 바튼 하나로 다양한 요리를 완성할 수 있는 '국도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국도미'는 집밥 조리 기기로 음식 재료를 넣고 바튼만 누르면 각 레시피별로 알맞은 압력, 시간, 증기 배출, 보온까지 조리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주방가전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한전KPS,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최초 비대면 감사 도입 이어 자율점검 체계 확립

한전KPS가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27일 한전KPS에 따르면 종합감사 수감 전에 자체 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자율적 내부 통제 감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전KPS는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감사 시스템에 감사 대상 부서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자율형 종합감사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고 관련 매뉴얼을 만들었다.

한전KPS는 공공기관 최초로 비대면

감사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한국감사협회 및 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대상과 기관 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도는 사후점검 위주인 종합감사 수감 전에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무담당자가 1차로 자율점검을 한다. 준감사인 과 외부 전문가의 2차 교차 점검을 거쳐 마지막으로 감사실에서 최종 검토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단계별 방식이다.

한전KPS는 감사실 근무 경험이 있거나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자체 전문

인력을 활용, 준감사인을 위촉하고 외부 감사자문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있다.

수감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예방 감사 정착을 위해 자체 점검 체크 리스트의 57개 항목과 116개 점검기준 매뉴얼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 배포했다.

올해 감사 대상 부서 35곳 중 11곳에 자율형 종합감사를 적용했으며 내년에는 60% 이상 확대해 계획이다.

강동신 상임감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청렴 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상호금융 신규대출자 절반이 고신용자

민행배 의원 "투기 우회 경로로 악용될 우려"

1-2등급 고신용자들이 은행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규제를 피해 상호금융으로 몰리면서 올해 상호금융 신규대출자의 절반가량을 고신용자들이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이 투기의 우회 경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행배 의원(광주 광산구)이 27일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37조7천165억원 중 절반 가까운 17조5천499억원(46.53%)이 신용등급 1-2등급의 우량 대출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1-2등급 대출자 비중은 19.71%(11조

2천886억원), 2019년에도 21.41%를 유지했으나 2020년엔 26.75%까지 늘어난 뒤 올해 들어선 46.53%까지 폭증했다.

문제는 이처럼 고신용자 대출을 상호금융이 늘리기 시작하면 정작 중·저신용자들이나 저소득 대출자들이 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우량등급 대출금액이 늘어나는 동안 7등급 이하 대출금액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8%에서 2019년 16.72%, 2020년 13.78%, 올해 상반기엔 10.51%까지 하락했다.

상호금융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다른 금융에 비해 150%로 높아 대출규제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DSR 규제 150%는 개별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균 목표치로, 특정 차주에게 DSR 200%를, 다른 차주에게는 100%를 적용해 평균 150%만 맞춰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받지 못하는 대출 수요를 충당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를 분석한 민행배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밀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대출규제 목표달성이 실패하고 오히려 제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자금 조달할 곳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투기를 막으면서 서민들의 자금수요는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광기술원 '조명서비스 산업 발전' 업무 협약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등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력

한국광기술원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와 광융합 조명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광융합 조명서비스 산업 전반의 진흥을 도모하고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능력 제고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광융합 조명서비스 산업 보급·활성화, 세미나·심포지엄

·연구발표회 개최, 인적자원 개발, 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정보교류 및 연구시설 장비 상호 이용, 사

/박은성기자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방법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①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②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풍성한 먹거리와 훈훈한 정이 있는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 8일로 끝나는 날

맛과 멋이 어우러진
능주 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5, 10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화순군 Hwasun-gun

문의 : 062)650-2099